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연구

—〈구복여행〉 설화와 대비를 통하여

유정월*

〈차 례〉

1. 서론
2.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의 구조: 왕로-귀로와 문제-해결
3. 운명을 보는 자, 운명을 보는 곳
 - 1) 오늘이의 존재론적 변화
 - 2) 운명의 시각화, 원천강
4.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인식론과 실천론의 결합
5. 삶의 질곡에 대한 사유

〈국문초록〉

본고는 〈원천강본풀이〉를 중심으로 해당 본풀이 향유집단의 ‘운명관’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 〈구복여행〉 설화와 다른 지점에 주목하였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여행서사로 왕로-귀로와 문제-해결이 대응을 하는 서사 구조를 가진다.

본고는 〈구복여행〉 설화와 다른 〈원천강본풀이〉의 특수한 지점이 여정의 시작과 끝에 있다고 보고, 오늘이라는 인물이 부모를 찾아서 떠나는 동기(최초 상황)와 여행의 결과 신녀가 되어 원천강을 등사하는 결말(최후 상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오늘이의 존재론적 변화의 원인을 원천강에서 찾는다. 원천강은 시간을 보는 곳, 운명을 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원천강’에 대한 지식이 제주도 본풀이 향유집단에게 공유되던 지역적 지식이었음을 살핀다. 이를 통해 이 본풀이 향유집단에서 운명론이 인식론이자 실천론이라는 것을 읽어낸다. 여기에는 순조롭지 않은 삶의 경험이, 팔자를 모르는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팔자를 앞으로써 그러한 경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나 믿음이 개입한다.

□ <원천강본풀이>, 지역적 지식, 팔자, 운명관, 인식론, 실천론, <구복여행> 설화

1. 서론

본고는 <원천강본풀이>의 특수성을 운명관의 관점에서 읽어보고자 한다. ‘세계관’이나 ‘가치관’처럼 ‘운명관’ 역시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되는 것이다.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상화해야 한다.¹⁾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원천강본풀이>의 특수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을 특정 맥락과 문화 속에서 의미화 할 것이다. <원천강본풀이>의 특수한 지점은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으며 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고찰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를 대비적으로 고찰하면서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²⁾

<구복여행> 설화는 가난한 총각이 옥황상제에게 복을 타러 가는 도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해결법을 알아와 가르쳐준

1) 송효섭, 『한국 설화의 세계관』,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35~36쪽.

2) <원천강본풀이> 1차 자료는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을 저간으로 하여 현대어역을 한 것으로, 이복규·양정화 역, 『한국의 신화』, 민속원, 2017, 264~273의 박봉춘 본이다. 이는 조술생이 구연한 <원천강본풀이>와 다르다. 조술생의 이 텍스트는 오히려 아기장수 설화의 변이형과 가깝다. 조술생의 <원천강본풀이>에 대해서는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271~274쪽; 고은임, 『<원천강본풀이> 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 3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 204~205쪽 참고.

뒤, 자신도 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이 설화는 현재 50여 편 가량이 채록되었으며 채록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구복여행> 설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널리 구전된 이야기 유형이기도 하다.³⁾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袁天綱)’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당나라 초기 역사적 인물로 관상을 잘 보았던 복자(卜者)의 이름이다.) <구복여행> 설화에서 주인공이 옥황상제에게 가기 위해 여행을 한다면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은 원천강으로 가는 여행을 한다. <원천강본풀이>는 현재 두 편의 자료가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1930년대에 박춘봉 심방을 대상으로 채록한 자료와 1960년대에 조술생 심방을 대상으로 채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는 채록되지 않았으며 현재 제주도에서도 사실상 전승이 중단된 상태이다.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의 유사성은 이미 학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 두 텍스트의 기본 서사는 주인공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인간, 동물, 식물 등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 문제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문제의 해법을 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수자는 <원천강본풀이>가 <구복여행> 설화의 모태가 되었다고 보았다.⁴⁾ 이수자가 <원천강본풀이>를 더 근원적으로 본 데 비해, 김혜정은 <구복여행> 설화가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환경의 영향으로 개작되었을 것⁵⁾이라고 하면서 <구복

3) 이 설화의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은 기원전 3세기 팔리문(불교에서 대중부와 대비되는 상좌부의 성스러운 언어)으로 된 『불본생경(佛本生經)』으로, 거기에 이미 <구복여행> 설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의 삽화(挿話)로 기재되어 있다. <구복여행> 설화가 세계적으로 채록되고 있는 데에는 불교 경전과의 관계가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4)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783-818쪽.

5)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 신명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270쪽.

여행> 설화가 신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강권용은 <원천강본풀이>가 <구복여행> 설화의 여행 화소를 받아들였다고 보고⁶⁾ <구복여행>이 선행하는 텍스트임을 암시한다. 원천 텍스트를 다르게 상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복여행> 설화를 보편적 유형으로 <원천강본풀이>를 특수한 유형으로 여긴다.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를 비교하는 것은 일견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설화 유형과 하나의 각편을 비교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위 유형과 하위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의 이러한 위상 차이를 전제하면서 <원천강본풀이>가 <구복여행> 설화와 다른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텍스트에는 모두 여행 과정과 문제-해결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 쉽게 확인되는 것은 장르상의 차이인데, <구복여행> 설화가 민담으로 이해된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신화로 향유된다. 일견하기에, 장르상의 차이가 텍스트 세부를 차별화했거나 텍스트의 세부적 차이가 장르의 차이로 귀결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장르는 단순히 텍스트의 미적·형식적 특징을 재현하거나 종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르의 차이가 가지는 함의는 크다. 설화에서 장르는 청중들에게 ‘기대지평’으로, 화자들에게 ‘이야기의 모델’로 기능한다. 따라서 장르의 차이는 텍스트 소통 방식의 차이이며, 소통 기반이 되는 토대의 차이이다. 츠베탕 토도로프는 여느 제도과 마찬가지로 장르도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⁷⁾ 그렇다면 장르의 차이는 텍스트 내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본고는 두 텍스트의 장르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거나 그러한 차

6)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2쪽.

7) 츠베탕 토도로프 저, 송덕호·조명원 역, 『담론의 장르』, 예림기획, 2004, 76~77쪽.

이를 지시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논의는 두 텍스트의 공통점을 살피고 <원천강본풀이>의 특수성을 확인한 후 그것의 함의를 운명관과 관련하여 읽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2.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의 구조

: 왕로-귀로와 문제-해결

주지하다시피, 두 텍스트의 공통 서사는 여행을 중심으로 잘 드러난다. 두 텍스트에서 주인공은 길을 떠나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왕복 여정을 보여준다. 통합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 두 서사는 일단 출발→왕로(往路)→도착→귀로(歸路)로 분절 가능하다. <구복여행> 설화의 주인공은 남성으로,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은 여성으로, 성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어떤 결핍으로 인해 여행을 결심한다. <구복여행> 설화에서는 한 총각(대표적 고유명사는 ‘석승’으로 나온다)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타러 여행을 떠나고,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여행 결과 이들의 결핍이 충족된 부분이 나타난다. 출발 전과 귀환 후를 고려하면 이 두 텍스트의 시퀀스는 여행 동기→출발→왕로→도착→귀로→결과의 통합적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동기→출발→왕로→도착→귀로→결과

이때 주인공의 목적지는 모두 이계로 설정된다. <구복여행> 설화에서 목적지는 각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늘, 용궁, 서천서역국 등이 가장

자주 등장하며, 그곳에는 하느님, 옥황상제, 용왕, 부처⁸⁾ 등의 절대자(초월자)가 있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천강본풀이>의 목적지는 원천강으로, 오늘이의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들 역시 다른 절대자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석승이와 오늘이는 여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난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다. 주인공들의 왕로는 다른 등장인물을 만나고 문제를 요청받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문제1-문제2-문제3). 주인공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각 문제의 해결책을 듣고 귀로에서 다시 이들을 만나 해결책을 알려준다. 귀로에서는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해결3),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해결2), 마지막으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다(해결1). 귀로는 왕로와는 대척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의 연쇄를 이룬다. 왕로와 귀로는 대칭을 이루면서 문제적 상황과 해결된 상황이 대비적으로 나타난다.

왕로: 귀로

문제적 상황: 해결의 상황

이상의 논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통합적 관계	<구복여행> 설화	<원천강본풀이>
동기	석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나로도 부모도 몰라서 '오늘이'라 불리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출발	석승은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구하러 떠났다.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부모를 만나러 떠났다.

8) <구복여행> 설화의 각편 연구에 대해서는 김정희, 「<구복여행> 설화의 교육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16; 최운영, 「<구복여행> 설화의 문제해결과정과 그 교육적 의미」,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참고.

왕로	한 여인을 만나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1)	장상이를 만나 왜 책만 읽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1)
	노인을 만나 집에 있는 꽃이나 과수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2)	연꽃을 만나 꽃이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2)
	아무기를 만나 용이 못되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3)	큰 뱀을 만나 용이 못되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3)
왕로		매일이를 만나 왜 책만 읽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았다. (문제4)
왕로		선녀를 만나 뚫어진 바가지를 기워주고 원천강 입구에 도착했다.
왕로		문지기가 가로 막았으나 부모를 찾아온 연유를 말했다.
도착	서역국에 도착하여 질문의 해답을 들었다.	원천강에 도착하여 부모를 만나고 질문의 해답을 들었다.
귀로	이무기가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게 하였다. (해결3)	큰 뱀에게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게 하였다. (해결3)
	식물의 뿌리 근처 금은보화를 파내게 하였다. (이것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해결2)	연꽃의 상가지를 꺾게 하였다. (이것을 얻어 신녀가 되었다.) (해결2)
	과부는 처음 만나는 외간 남자와 결혼하라 하였다. (주인공이 바로 그 남자였다.) (해결1)	장상이와 매일이를 혼인시켰다. (해결1)
결과	혼인도 하고 재물도 얻어 잘 살았다 ⁹⁾	신녀가 되어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하였다.

두 텍스트의 여정에서 주인공이 만나는 인물 유형 역시 유사하다. <구복여행> 설화에서 만나는 여인(과부 혹은 처녀), 나무(혹은 꽃을 가진 사람), 이무기(혹은 용)는 각각 인간, 식물, 동물로 대표된다. <구복여행> 설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을 추출한 결과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각편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숫자는 조금씩 다르다. 한 명 혹은 두 명인 경우도 있고 네 명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책 읽는 소녀, 매일이를 만나 총 4번의 만남이 있다. 그러나 매

9) <구복여행> 설화의 공통적 줄거리에 대해서는 황인덕, 『한중인 <구복여행>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31, 비교민속학회, 2005, 170쪽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일이가 가진 문제는 장상이가 가진 문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은 <구복여행> 설화의 대표적 방식과 유사하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왕로에서는 매일이 외 선녀와 문지기를 추가적으로 만난다. 이는 <구복여행> 설화의 다른 각편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지점이다. 선녀들 역시 어떤 문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전의 다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다르다. 선녀들은 매일에게 원천강에 가서 무언가를 알아봐 주길 부탁하지 않는다. 이들의 문제는 원천강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¹⁰⁾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로 오르는 모티프는 <세경본풀이>에도 나타난다. <세경본풀이>의 선녀들 역시 물을 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문도령이 자청비와 목욕하던 물을 찾지 못해 곤란에 처해 있었다. □자청비는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이공본풀이>에도 선녀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원천강본풀이>의 선녀들처럼 바가지에 구멍이 나서 물을 길지 못해 곤란해 한다. 한락궁이는 그 구멍을 막아주고 함께 하늘로 오른다. 다른 본풀이의 선녀들의 역할을 참고하면, 오늘이가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수직적 이동을 위한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지기를 만나는 장면도 원천강까지 도달하는 여정의 일부이다. 선녀와 문지기가 등장하면서 원천강으로 가는 오늘이의 여정은 상대적으로 입체적이고 험난해 보인다.

10) 조홍윤은 시간성을 중심으로 <원천강본풀이>를 분석하면서 시간의 신으로서 오늘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인물들의 문제적 상황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시간을 사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선녀는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이기, 선녀의 문제를 다른 등장인물들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2011, 409~426쪽.

핵심적 차이는 여정의 난이도에 있지 않다. 애초에 출발을 하게 된 동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결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두 텍스트에서 서사 중간에 여정은 유사하지만, 여행의 동기와 여행의 결과가 다른 것이다. 여행의 동기를 최초 상황, 여행의 결과를 최종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이 차이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3. 운명을 보는 자, 운명을 보는 곳

1) 오늘이의 존재론적 변화

먼저 여행의 최초 상황과 최종 상황에 대해 살피기 전에 여정에 나타나는 유의미해 보이는 차이점 하나에 주목하자. <구복여행> 설화에는 주인공의 혼인이 나타나지만 <원천강본풀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석승이는 여인과 결혼하는 반면 오늘이는 장상이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장상이와 결혼하는 것은 매일이인데, 이들은 <세민황제본풀이>에도 등장한다. 이는 <당태종전(唐太宗傳)>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본풀이다. 세민황제는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괴롭히기만 하다가 죽어 저승에 가서 자신의 저승 창고가 비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승에서 적선하고 공덕을 쌓아야 저승의 창고가 가득차서 편안히 살 수 있다. 저승 왕은 세민황제에게 이승의 매일과 장상을 본받아 적선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매일과 장상의 저승 궤에서 돈을 꺼내 주면서 이승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승으로 돌아간 세민황제는 매일과 장상을 본받아 적선하며 저승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¹¹⁾ <세민황제본풀이> 혹은 그 저본이 된 <당태종전>을 고려하면,

11) 정제호, 「특수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연구: 매일과 장상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8, 한국무속학회, 2004, 247~270쪽.

<원천강본풀이>에서 매일이와 장상이가 부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둘은 부부가 되고 오늘이에게는 짝이 없다. 오늘이가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쉽게 말하기 힘들다. 석승은 여행길에 배필(과 재물)을 얻지만 오늘이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원천강본풀이>의 여행의 결과, 즉 최종 상황을 살펴보자.

“장상이와 매일이는 부부가 되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요, 연화동은 윗가지의 꽃 따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어버리면 다른 가지에도 만발할 것이며, 큰 뱀은 야광주를 한 개만 물었으며 될 터인데, 너무 욕심을 많이 가져서 세 개를 물어버리니 용이 못 된 것이다. 그러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두 개를 뱉어주어 버리면 곧 용이 되리라.” 하고 “너도 그 야광주들과 연꽃을 가지면 신녀가 되리라.”

돌아오는 길에 매일이를 만나 부모국에서 들은 대로 말하니 장상이 있는 곳을 모른다 하거늘, 내가 데려다 주마하고 같이 가다가 큰 뱀 만나서도 그 사실을 말하니 야광주 둘을 뱉어서 오늘이에게 주고 즉시 용이 되어 뇌성벽력(雷聲霹靂)과 아울러 승천하였다. 다음에 연꽃나무를 만나 그런 말을 하니, 윗가지를 꺾어서 즉시 오늘이에게 주었다. 그러니 가지마다 고운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향대를 뿜내게 되었다. 다음에 장상이를 만나니, 매일이와 장상이 부부가 되어 이 세상의 만년 영화를 누리고 오늘이는 백씨 부인을 만나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 후 옥황의 신녀가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이는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하게 하였다.¹²⁾

오늘이는 <구복여행> 설화의 석승이처럼 출발->왕로->도착->귀로라는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초 상황과 최후 상황은 석승이와 다르다. 가난하던 석승이는 부인과 재물을 얻어 행복하게 산다.

12) <원천강본풀이>, 이복규 · 양정화 역(2017), 앞의 책, 271~272쪽.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는 신녀가 되어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하며 다닌다. <구복여행> 설화에서는 최초 상황과 최후 상황 사이에 대응 관계가 놓인다. 복의 결핍이 복의 충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가난한 총각이 부유한 신랑이 된 것은 박복에서 다복으로의 상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초 상황	최후 상황
<구복여행> 설화	가난한 총각	부유한 신랑
<원천강본풀이>	고아 오늘이	신녀 오늘이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는 최초 상황에서 부모가 없었지만 원천강에 도착해 부모를 찾는 데 성공한다. 그렇다고 이것만을 최종 상황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늘이가 부모를 찾는 데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신화로 소통되기 힘들다. 최종 상황에서 오늘이는 신녀가 된다. 오늘이는 인간에서 신녀로 변화한 것이다. 이 변화는 상태 변화보다는 근원적이다. 이전에 없던 능력이나 자질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이의 존재론적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원천강이라는 공간이 있다.

2) 운명의 시각화, 원천강

신녀가 된 오늘이는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한다. 이 최종 상황을 보면, 공간이었던 원천강이 등사의 대상인 서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공간(목적지)으로서의 원천강과 <구복여행> 설화의 이계가 가지는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해보자.

<구복여행> 설화의 이계는 복을 주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받은 복(여인과 재물, 결혼과 부)은 이계에서 부터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석승이는 복을 타러 간 여행에서 복을 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의 파송자가, 옥황상제로 대표되는 절대자라고 하기는 힘들다. <구복여행> 설화의 각편을 보면, 주인공이 옥황상제에게 직접 복을 타는 이야기는 드물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각편의 내용은 주인공이 초월자에게 “가난하여 복 타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곧바로 다른 사람이 부탁한 문제를 옥황상제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된다.¹³⁾ 이 각편들에는 하늘에서 복을 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복 타러 왔다고 이야기 할 때 절대자가 “네가 가진 복이 그 만큼인데 난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¹⁴⁾ 하면서 복을 주지 않는 각편도 있다. 그렇다면 <구복여행> 설화에서 주인공이 획득한 복은 절대자로부터 파송된 것이 아니거나, 절대자로부터 파송된 것이 불분명하다. 주인공의 구복 노정이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에서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이타적 사고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깨달음의 편력¹⁵⁾이라는 해석을 고려하면, <구복여행> 설화에서 복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인간에게 내재한 것일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이계인 원천강의 기능과 역할은 <구복여행> 설화의 이계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오늘이가 원천강으로 간다고 할 때 인물들은 자신의 팔자를 물어봐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원천강본풀이>에는 “팔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13) 박명숙, 『한·중 구복여행 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371~407쪽.

14) 박명숙(2006), 위의 논문, 392쪽.

15)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16~135쪽.

“나는 오늘이라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원천강을 찾아 가노라.”

“반가운 말이로구나. 그러면 나의 팔자나 알아다 주시오.”

“무슨 팔자입니까?”

“나는 겨울에는 움이 뿌리에 들고, 정월이 되면 몸속에 들었다가 이월이 되면 가지에 가고, 삼월이 되면 꽃이 되는데,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으니 이 팔자를 물어봐 주시오.¹⁶⁾

연꽃의 부탁은 꽃이 상가지에만 피는 팔자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매일이 역시 “원천강에 가서 자기의 항상 글만 읽고 있는 팔자를 물어봐 달라”고 한다. 원천강 앞에서 문지기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을 때 오늘이는 부모를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받은 부탁을 해결하지 못함을 한탄한다. (“팔자 부탁 어찌하나. 모든 은혜 어찌 하나.”) 오늘이 역시 이들의 부탁을 팔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으로 인식한다. <구복여행> 설화에서 이계가 복을 파송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복을 파송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원천강은 팔자를 알 수 있는 곳, 팔자를 파송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팔자(八字)’는 사주를 구성하는 여덟 글자를 말한다. 원래는 출생한 연(年)·월(月)·일(日)·시(時)에 해당하는 간지(干支) 여덟 글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사람은 팔자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일생이 좌우된다는 관념¹⁷⁾을 고려하면, 팔자는 운명에 대한 환유라 할 수 있다. 원천강은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곳이다. 그러나 원천강이 운명을 정하는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옥황상제가 별층당에서 책을 읽으라고 했다는 장상이의 말을 축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운명을 명한 것은 옥황상제인 듯하

16) <원천강본풀이>, 이복규·양정화 역(2017), 앞의 책, 266쪽.

17) <팔자>, 『한국고전용어사전』 DB.

다. 이는 하늘이 운명을 정한다고 보는 천명론(天命論) 혹은 정명론(定命論)과도 닮아있다.¹⁸⁾ 원천강은 운명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이 이미 정한 운명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원천강에 도착한 오늘이는 부모와 함께 사계절을 구경한다. “만리장성 둘러쌓은 곳에 곳곳마다 문을 열어 보았다. 보니 춘하추동 사시절이 모두 있는 것이었다.” 계절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살아있는 것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의 운명인 것처럼 미혼에서 기혼으로, 부분의 개화에서 전체의 개화로, 이무기에서 용으로 전환은 각각의 운명이다. 계절과 운명은 모두 시간에 따라 전개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 혹은 패턴 역시 유사하다.¹⁹⁾ 출생-성장-수확-저장이라는 각 계절의 상징은 유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라는 인간 생애의 상징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수의 부침이나 흥망성쇠의 상징이기도 하다.

원천강은 계절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공간화한 곳이다. 시간은 만지거나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정형성을 가진다. 시간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고정화와 물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천강은 시간을 고정화하고 물질화한 곳이다. 원천강의 계절을 운명의 상징으로 본다면²⁰⁾, 이 둘은 모두 ‘본

18) 주희는 “부귀사생(富貴死生)과 화복귀천(禍福貴賤)은 모두 태어나면서 결정된 것”이라며 만물의 창조 원리로서의 천명 외에 운명의 의미로서의 천명을 제시하였다. 천명은 만물의 창조 원리와 운명이라는 두 의미로 쓰인다.

19) 원천강의 사계절을 인간의 운명이라는 코드로 해석할 때, 음양오행의 또 다른 상징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진 음양오행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장 방대한 체계를 지닌 사상이다. 계절·방위·기후·천체[오성(五星)]·인체[오장(五臟)]·덕성[오상(五常)]·색깔[오방색(五色)]·간지(干支) 등이 오행과 긴밀히 결합되어 설명되었다. 이 가운데 오행과 계절의 관계는 특히 자주 언급되는데,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에 해당하며, 토는 사계절의 성질을 두루 갖추었다고 보거나 그러한 시간을 담은 공간의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20) 인간의 삶과 계절은 모두 시간에 따라 변화할 뿐 아니라 그 패턴이 유사하다. 팔자를

다’는 행위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다.²¹⁾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고정화와 물질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인간 삶을 고정화하고 물질화한 것, 그 결과가 운명에 대한 서적 『원천강』이다. 운명을 보는 곳이 운명을 적은 곳이 되는 것이다.

<원천강본풀이>가 신화인 이유는 ‘원천강’의 근원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운명을 보는 장소의 기원이자 운명을 보는 서적의 기원이고 더 나아가 운명을 보는 이, 오늘이의 기원이다. 그렇다면 왜 ‘오늘이본풀이’가 아니라 ‘원천강본풀이’일까? 제목이 우연하게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석적 코드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등사하는 신녀이다. 원천강은 이미 결정된 운명이 있는 곳이다. 오늘이는 운명을 정하는 이도, 운명을 바꾸는 이도 될 수 없다. 그녀는 이미 정해지고 완결된 것을 “등사(謄寫)”할 뿐이다. 오늘이가 신녀가 되었다는 것은 운명의 전달자로서 신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오늘이의 존재론적 변화는 원천강에 다녀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간을 ‘보는’ 원천강을 다녀왔기에 오늘이는 운명을 ‘보는’ 능력과 자질이 생겼다. 공간의 특성이 인물의 특성으로 전이된 것이다. 이러한 전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다.

구성하는 사주의 음양오행은 ‘출생[生]-성장[長]-조화[化]-수확[收]-저장[藏]’이라는 생명의 순환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시간을 매개로 하는 인간 삶의 변화는 계절과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음양오행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계절의 순환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패턴의 유사성으로 인해 계절은 음양오행의 대표적 상징 체계이자 기술체계가 된다. (정문교, 『쉽게 풀어 쓴 운명』, 봄꽃여름숲가을열매겨울뿌리, 2016, 31~45쪽.)

21) 일례로 ‘점을 본다’는 운명을 알고자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4. <원천강본풀이>의 운명관: 인식론과 실천론의 결합

<구복여행> 설화에서 이계가 복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고,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이 운명을 보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 외에 또 다른 차이도 있다. 복과 팔자에 대한 메타적 인식의 차이이다. 앞서 <구복여행> 설화에서 하늘은 복의 파송자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등장인물 역시 하늘을 복의 파송자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구복여행> 설화에서 각 인물이 처한 문제적 상황은 궁극적으로는 복의 없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인물들은 이를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 인물들은 주인공이 복을 타러 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늘이 전능하다고 생각되어 해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²²⁾

<원천강본풀이> 등장인물에게는 운명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등장인물들은 원천강에서 팔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또한 이들은 팔자를 앎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들의 인식 체계에서 문제적 상황은 팔자를 모르는 데에서, 해결의 상황은 팔자를 아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상-매일이 결혼하고 연꽃이 꽃을 피우고 뱀이 용이 된 것은 팔자를 알게 된 결과이다. <구복여행> 설화와 달리 <원천강본풀이>에는 팔자를 알고 모름의 문제, 인식적 층위가 중요하게 개입한다.

22) 가령 이런 식이다. “너 그 하느님한테 복을 타러 간다니 우리 아이가 누워서 여태 나서 여태 크는데 열 네 살 먹어서 일, 일어 못 난다 그이야 아 이거 하느님은 잘 알겠으니까 하느님한테 좀 물어다 다고.” 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1, 468~469쪽.) 하늘에서 복을 타 아이가 설 수 있게 한다기보다는 하느님이 아이가 서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니 물어봐 달라고 것이다. 문제적 상황이 복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늘은 복을 주는 곳이기보다는 해결책을 알려주는 곳처럼 생각된다.

이 두 텍스트에서 각각 복과 팔자로 대별되는 것은 얼핏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구복여행> 설화에서 복은 절대자로부터 파송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복을 탄다. <구복여행> 설화에서는 복을 타는 행위와 여행을 하는 행위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행 과정이 복을 타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행위의 실천이 이미 복을 예정한 것이다. 복을 타러 가면 복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복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산물로 읽힌다. 복에 대해서는 천정적 복(天定的 福)과 인력적 복(人力的 福)을 구분하기도 한다. 천정적 복은 하늘에 의해 정해져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이며, 인력적 복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획득한 복이다.²³⁾ <구복여행> 설화의 복은 인간의 임의성과 능동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인력적 복이라 할 수 있다.

<구복여행> 설화와 <원천강본풀이> 모두에서 문제적 상황이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두 텍스트에서는 문제적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총각이 처녀를 만나고, 일부에만 피었던 꽃이 전체로 피고,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어 용이 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텍스트에서 문제적 상황은 그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심지어 장상이와 매일이는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는 팔자에 대해 질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구복여행> 설화에서는 그 지점이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서 문제적 상황이 꼭 박복으로, 해결의 상황이 꼭 다복으로 인물들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각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복이 없어 용이 되지 못한다

23) 두 가지 복은 초월성과 현실성, 불변성과 가변성, 결정성과 임의성, 수동성과 능동성 등 여러 가지 대립적 성격을 가진다.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는 “정재민, 『차복설화의 구조와 복에 관한 인식』, 구비문학연구 4권, 한국구비문학회, 1997, 195쪽.” 참조. 정재민은 차복설화에 나타난 ‘복’에 관한 인식이 위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고 하거나, 복이 없어 혼자 책만 읽는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원천강본풀이>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팔자’를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과 대비적이다. 또 주인공이 처한 박복이나 다복의 대립적 상황이 꼭 하늘로부터 파송된 복의 유무 때문도 아니다.

<원천강본풀이>에서는 모든 것이 원천강에 달려 있다. 원천강은 운명을 보는 곳이며, 운명을 보는 곳이 이렇게 인간 세계와 구분되어 존재하는 한, 운명을 아는 것은 저절로,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인간 의지의 강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은 달라진다. 복을 조금 받는다거나 많이 받는다는 등의 표현이 가능한 것도 복이 정도의 문제임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복은 아날로그적이다. 반면 <원천강본풀이>에서 운명에 대한 앎은 디지털적 코드와 유사하다. 팔자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 다르다. 팔자를 모르는 상황과 팔자를 아는 상황이 구분되는 것은 0 아니면 1과 같다. 모 아니면 도이다. 운명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운명을 아는 곳이 별개로 존재하고, 운명을 아는 순간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 발생 상황과 해결 상황의 사이에 ‘팔자’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 아는 것은 단순히 인식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팔자’를 안다는 것은 해결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식과 수행, 앎과 실천이 맞물리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운명 전달자는 하늘이 정한 운명을 전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운명 전달자는 결국 운명을 전달함으로써 삶을 바꾸도록 하는 인물이다. 장상이, 연꽃, 이무기, 매일이는 오늘이 덕에 원천강을 직접 다녀오지 않고도 자신들의 운명을 알 수 있었고 다음 삶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었다. 오늘이 아니었다면 장상이는 매일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꽃은 상가지에서만 피었을 것이며 뱀은 뱀으로만 있었을 것이다.

운명의 전달자로서 오늘이는 한편으로는 문체적 인간사와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천강이 가진 운명의 비밀과 연결된 매개적 존재이다. (오늘이가 신의 매개자라고 한다면, 오늘이의 결혼이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 점에서 오늘이의 존재는 무당에 비견될 수 있다.²⁴⁾ 신과 인간의 매개자라는 점에서 오늘이는 무당과 유사하지만, 매개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무당이 인간의 소원을 신(하늘)에게, 신의 뜻을 인간에게로 전달하는 쌍방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오늘이는 신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더 가깝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를 다룬 유명한 비극작품에서, 신화 속 인물이 자신의 숙명을 알아가며 분투하는 모습을 그려보인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에 앞서 예언된 끔찍한 이야기를 실행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어머니를 범하여 아기를 잉태하게 한 것도 아니다. 그 인물은 예언에 따라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운명이었고, 운명을 피하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운명을 사실로 입증한다.²⁵⁾

24) 운명에 관한 신화로 제주도의 <삼공본풀이>가 대표적이다. <삼공본풀이>와 <원천강본풀이>의 관계에 대해 “<삼공본풀이>가 일반 단골들의 운명에 대해 본을 푼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의 본을 푼다.”는 논의가 있다.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2쪽.) 그러나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등장인물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심방의 운명에 대한 본풀이로는 무조신 본풀이인 <초공본풀이>를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천강본풀이>를 심방의 본을 푸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제주도 여러 본풀이와의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일이지만, 일단 본고에서는 <삼공본풀이>는 운명 자체를 결정짓는 신에 대한 본풀이로 보고, 오늘이는 그렇게 결정된 운명을 전달하는 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25) 윌리엄 데이비스 킹 저, 김갑연 역,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책세상, 2017,

오이디푸스에는 운명을 벗어나는 것과 운명에 속박되는 것의 대립이 있다. 이와 달리 <원천강본풀이>에는 운명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대립이 있다. 오이디푸스의 욕망이 운명을 벗어나는 것에 있다면 <원천강본풀이> 인물들의 욕망은 운명을 아는 것에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운명 바깥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바깥의 부재는, 운명의 바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운명관에 따르면, 삶의 개선을 위해 운명을 아는 것은 필수인 것처럼 보인다.

5. 삶의 질곡에 대한 사유

다른 지역 서사무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원천강’이 제주도 본풀이에서는 자주 등장한다. ‘원천강’은 <초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 등 일반 본풀이에 등장한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원천강 스주역(원천강이 쓴 점서)’, <세경본풀이>에서는 ‘스주역 원천강(원천강이란 점서)’이 나오는데, 모두 자식을 가질 운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점서를 지칭한다. <차사본풀이>에서는 버물왕 삼형제가 동개남 은중절 대사에게 “원천강이나 〇졌느냐”고 묻는데 세 아들의 팔자를 묻기 위해 점서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때 대사는 “폰체 직훈 대스가 원천강 화주역 아니냐 질 필요가 십네키?”라고 반문한다. 부처 지키는 대사가 원천강 화주역을 안 가지고 있을 리가 있겠냐는 것이다.²⁶⁾ <호근이 므루 요드렛당본풀이>에는 “원천강을 췌기랴고”, <양씨아미본풀이>에는 “원천강을 그리치고 스주를 그리칠 아기”로 나온다. 여기에서 원천강은 팔자를 지칭한다.²⁷⁾

312쪽.

26) <차사본풀이>,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러한 일반본풀이, 당본풀이, 조상본풀이는 모두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본풀이다.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원천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원천강’이 다수 등장한다. 『원천강』이 음양과 중 명과학(命課學)²⁸⁾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과목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명과학에서 『원천강』은 배강(背講)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른 책(『서자평(徐子平)』, 『응천가(應天歌)』, 『범위수(範圍數)』, 『극택통서(�擇通書)』, 『경국대전』 등)은 임문고강(臨文考講), 즉 책을 펴 놓고 읽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명과학²⁹⁾을 시험 보려는 사람들에게 『원천강』은 암기가 필수인, 중요한 저서로서 생각되었다. 이들에게 『원천강』은 운명의 원리와 그것의 적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명리학의 교과서였다. 『원천강』은 소수에게 전수되는 전문적 지식이었던 셈이다.

제주도에서 원천강(팔자이기도 하고 서적이기도 하기에 『』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이해는 이와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천강본풀이> 외 여러 본풀이에서 등장인물은 원천강에 가거나 원천강을 보면 팔자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원리와 이론보다는 용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원천강에 대한 지식은 제주도에서 지역적 지식(Local Knowledge)으로 소통된다. 토착적 지식, 민족적 지식 혹은 범박하게 전통

27) 원천강이 나오는 본풀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원천강본풀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DB;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9~40쪽 참조.

28) 음양과를 세분하면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으로 나누어진다. 음양과는 초시와 복시 2차에 걸쳐 시험을 치렀다. 명과학은 초시에 4인, 복시에 2인을 선발하였다.

29) 사람이 태어난 연(年)·월(月)·일(日)·시(時)의 네 간지(干支), 곧 사주(四柱)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알아보는 학문으로 사주학(四柱學)이라고도 한다.

적 지혜³⁰⁾로 불리는 이 지식은 주로 의식(儀式)을 통해, 혹은 구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원천강이 제주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었던 과정 역시 의식과 구전을 매개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굿을 하는 중 특정 상황(부부의 궁합, 자식의 유무, 자식의 수명, 자식의 미래)에서 원천강을 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구연함으로써 원천강에 대한 지식은 확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례와 구전을 통해 원천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을 주체들에 대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를 비롯해 여러 본풀이가 활발하게 전승되던 때, 그것을 연행한 사람과 연행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원천강에 관한 지식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들을 간단하게 ‘본풀이 향유집단’이라 하겠다.

원천강에 대한 지식이 본풀이 향유집단에게 지역적 지식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면, 애초에 원천강은 왜 그렇게 자주 본풀이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 먼저 본풀이 인물 세계와 제주도 현실 세계의 상동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집단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이행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삶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지속적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이 텍스트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³¹⁾ 그러나 삶의 브레이크 상황, 즉 문제적 상황은 <구복여행> 설화에도 나타나기에 본풀이 향유집단의 특수한 경험으로만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풀이에 이러한 경험이 그대로 반영된

30) 가령 음식에 박테리아를 첨가하거나 음식을 삭혀 소화되기 쉽고 영양이 풍부한 발효 식품을 만들어 먹을 때 활용하는 지식이 그 예이다. (한국성인교육학회, 『교육평가용 어사전』, 학지사, 2004, DB.)

31) 제주인의 삶을 설명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요인들로 ‘도서성, 삼재(三災: 風, 水, 旱)의 기후조건, 지리적 주변성, 억압과 차별의 역사적 경험, 척박한 농토, 영농규모의 협소성’ 등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서는 김치완, 『제주의 로컬리티 담론: 공간과 철학』, 경인문화사, 2015, 34쪽 참고.

것이라 보기 힘들다. 즉 제주도의 삶만이 고되고 힘들어 원천강이나 <원천강본풀이>가 소통되고 향유된 것은 아니다.

삶의 질곡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이 이러한 지역적 지식을 유통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운명을 아는 것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은 육지의 <구복여행> 설화와는 다른 제주의 <원천강본풀이>를 탄생시켰다. 이 본풀이 향유집단은 그 결과 운명을 정하는 곳/보는 곳/전하는 자 등 운명에 대한 세밀한 구분을 전제하고 확산한다. <구복여행>에서 복의 파송자는 개인일 수 있으며,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삶이 바뀔 수 있다. 재물과 여인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구복여행> 설화의 결말은 인간의 욕망이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충족될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면 운명을 정하거나 보는 제3의 공간을 상정하는 데에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비례하는 삶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도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전제된다. 원천강을 지역적 지식으로 하는 이 집단에게 삶의 질곡은 바로 인간이 노력만큼 잘 살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노력과 삶의 결과가 일치하거나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자신을 아무리 돌아본다 해도 잘 살 수는 없다. 잘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제3의 공간이나 제3자를 상정해야 한다. 이때 그것과 관련된 장소나 서적, 인물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이 작동한다. 인간의 노력과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선적이고 인과적으로 이해할 때 <구복여행> 설화와 같은 민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유사한 이야기가 민담으로 혹은 신화로 다르게 소통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처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노력과 삶의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두 텍스트의 장르 차이는 일련의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³²⁾

순조롭지 않은 삶의 경험이, 팔자를 모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팔자를 앎으로써 그러한 경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믿음, 즉 운명관이 이 본풀이 향유집단에게 고유한 것이다. 원천강이 본풀이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것은, 순조롭지 않은 삶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질문과 성찰이 선행했고, 그것이 팔자에 대한 앎이라는 해답으로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팔자를 앎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게 된 기저에는 그들이 경험한 삶의 질곡이 더 강고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요인들(예컨대 무속 문화의 특수성)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본풀이 향유집단에게 삶의 질곡이란, 알면 쉽지만 모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운명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중시한다고 해서, 이러한 인식적 차원의 강조가 실천적 차원의 부재를 함축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운명을 알고자 하고, 이는 대로 살고자 것은 하나의 실천이다. 이들에게 인간의 자유 의지는 운명을 알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32) 유사한 이야기가 신화와 민담으로 전승되면서 의미 지향이 변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민담-신화는 하나의 변별되는 장르로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틀이나 지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렇게 다른 의미 지향을 만들어 낸 기저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때 그것은 노력-결과라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향유집단이 민담과 신화를 구분하고 거기에 걸맞은 이야기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문화의 차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장르의 차이로 이론화된 것이다.

참고문헌

-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1~499쪽.
- 이복규 · 양정화 역, 『한국의 신화』, 민속원, 2017, 1~775쪽.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85쪽.
- 고은임, 『<원천강본풀이> 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 연구』 35집, 서울대국어국문학과, 2010, 201~220쪽.
- 김치완, 『제주의 로컬리티 담론: 공간과 철학』, 경인문화사, 2015, 1~228쪽.
- 김해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251~277쪽.
- 박명숙, 『한·중 구복여행 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2권, 한국구비문학회, 2006, 371~407쪽.
- 송효섭, 『한국 설화의 세계관』,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358쪽.
-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783~818쪽.
- 정문교, 『쉽게 풀어 쓴 운명』, 봄꽃여름숲가을열매겨울뿌리, 2016, 1~319쪽.
-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16~135쪽.
- 정재민, 『차복설화의 구조와 복에 관한 인식』, 구비문학연구 4권, 한국구비문학회, 1997, 183~214쪽.
- 정제호, 『특수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연구: 매일과 장상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 무속학』 28권, 한국무속학회, 2004, 247~270쪽.
- 조흥운,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연구』 23권, 남도민속학회, 2011, 409~436쪽.
- 한국성인교육학회,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DB.
- 황인덕, 『한·중·인 <구복여행> 설화의 비교적 고찰』, 『비교민속학』 31, 비교민속학회, 2005, 243~286쪽.
- 윌리엄 데이비스 킹 저, 김갑연 역,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책세상, 2017, 1~364쪽.
- 츠베당 토도로프 저, 송덕호·조명원 역, 『담론의 장르』, 예림기획, 2004, 1~479쪽.
-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DB.

ABSTRACT

Thoughts on Fate in Woncheongang(袁天綱) Bonpuri
—Comparative Study with Man Traveling to Seek Fortune Folk-tales

Ryu, Jeong-wol

This paper studies thoughts on fate of the group which enjoyed Woncheongang(袁天綱) Bonpuri. To reveal the uniqueness of the thoughts on fate, I pay attention to different points with Man Traveling to Seek Fortune Folk-tales. Both of these stories are a journey back to the starting point and it has the going-and-coming and problem-solving narrative structure that responds.

I see Woncheongang Bonpuri's peculiarities which differ from Man Traveling to Seek Fortune Folk-tales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itinerary. The motive for Onuri to leave her parents is initial situation. The ending to become the goddess to write Wonchengan is her last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trip, she becomes a sacred women. So this paper find the ontological change of Onuri is found in the Woncheongang, the mysterious river. The river has a meaning as a place to watch time and to see fate.

Finally, this paper examine the knowledge of the river was a local knowledge shared in the Jeju island by this group. This group thought on the fate that the episteme and practice was the same. They believed the inexplicable experience of life is due to the ignorance of Palzha(八字), and they can overcome the hardship of life with knowledge of Palzha.

Key Words Woncheongang(袁天綱) Bonpuri, local knowledge, Palzha(八字), thoughts on fate, episteme practice, Man Traveling to Seek Fortune Folk-tales

논문투고일 : 2018.07.22

심사완료일 : 2018.08.14

게재확정일 : 2018.08.24

K C I